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이다
(빌립보서 1:21)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665-1 ☎ 02-552-8200 © 2004 주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이태복

달고 요요한 그 말씀(금요일집회) - 천국 복음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입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제6장 천국의 의 (1)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의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 의로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서부터 오는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가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요구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실 때 친히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이다. 그런데 현재 이 세상에서 요구되는 이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조되어 설명되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인생의 총력을 다 바친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의 의를 능가하는 더 큰 의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서기관들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과 정력을 의에 관하여 공부하며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해줄 수 있는 규례를 만드는 데 바쳤다. 예를 들어, 한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살펴보자. 한식일 준수 여부를 따지려면 먼저 한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무엇인지 살펴봐야만 한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탈무드라는 율법책 속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밝혀놓았다. 예를 들어, 닭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닭이 한식일에 알을 낳았을 때 이 알을 한식일에 먹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서기관들은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 만일 그 사람이 알을 만들지 위해서 닭을 키웠다면, 그 알을 먹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알을 만들 목적으로 닭을 키운 게 아니라면, 이것은 '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알을 먹는 것도 일이 아니다.

올해 가을과 겨울에는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단기선교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곳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을 보게 된다. 자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먼 타국에서 찾아온 우리에게 깊이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이다. 서물지만 이렇게는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에게 그들이 보이는 진심어린 눈물이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뺨에 흘려내리는 눈물을 닦은 후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니 물론 당신들의 나라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내게 사랑으로도 할복을 전하지 않겠지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른 채 좌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서 있지만, 중간 밑이 어둠다. 몇몇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거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변에서 신유하며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가까이 있는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누가 저들을 도울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단기선교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영혼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 전에는 전도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눈은 우리 주변으로도 돌리자 주변전도로 힘쓰도록 하자. 단기선교를 위한 일대일 전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전도를 우리의 생활과 습관으로 삼도록 하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전도위원회 영성훈련-

주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만 영혼을 향한 사랑의 의복 일시: 16일(목) 오후 7:30~9:00

장소: 제2교육관 4층

대상: 중년의 모든 성도들

다음주일(19일), 일꾼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주일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제37대 장로선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신령한 일을 책임지고 돌볼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주께서 우리의 사역에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복을 주셔서 단기선교 사역이 크게 부흥하고 있고, 해마다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고 있으며, 여러 부분에서 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쁜 현실 속에서 특별히 신령한 일들을 살피고 지도할 장로님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에 교회에 오고 이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새 일꾼들을 뽑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일꾼투표를 임하도록 하자.

한 마음으로) 이번에 당회는 장로 후보 10인을 교회 앞에 추천하였다. 물론 교회 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일꾼들이 예비되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교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꾼들을 인사위원회와 당회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후에 열 분을 먼저 추천한 것이다. 이번엔 추천된 열 분은 신앙과 삶을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길 만한 일꾼들로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동안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겨온 신실한 일꾼들이다. 그러므로 중현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당회의 추천을 믿고 추천 받은 신실한 일꾼들의 프로파일을 찬찬히 살펴본 후에 한 마음으로 다음 주 공동의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중현교회가 복음의 길로 더 한층가게 달려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제37대 장로후보자 명단 - 본지 7면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The Lord said to him, "What is that in your hand?" And he said, "A staff." (Exodus 4:2)

As a Christian, if you truly believe God is Almighty, the King of Kings, an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en today's Bible verse will give you great encouragement. Moses tried to avoid serving God because he felt inadequate, so God asked him what was in his hand. Moses told him He had a staff, and it was with this staff that God conducted His miracles to deliver His people. Even Pharaoh was scared of it! If you feel unequipped to serve the Lord God, do not be troubled. He uses the weakest and smallest of your possessions for His glory in powerful and immense ways. Do you believe it? Let us look in the Bible at some other ways in which God used His servants.

In 1 Samuel 17, we read about David's defeat of Goliath. The Bible tells us that David "took his stick in his hand and chose for himself five smooth stones from the brook"(v. 40). David's stick was small enough to fit in one hand. It was a little stick, a slingshot, but God used it in a potent way. You see, God used what David had, even though what David had was small. David's small stick not only ended an important battle, but also struck down a giant soldier from Satan. In his hand was not a sword, or even a knife, but just a little stick.

In Judges 7, we read about Gideon's conquest over Midian. The Bible tells us that Gideon "divided the 300 men into three companies, and he put trumpets and empty pitchers into the hands of all of them, with torches inside the pitchers"(v. 16). God's army of 300 held trumpets and pitchers, while Midian's army of thousands held swords and spears. God used Gideon's powerless trumpets and fire pitchers to destroy Midian's whole army. 1 Corinthians 1:27-29 tells us, "but God has chosen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and God has chosen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things which are strong, and the base things of the world and the despised, God has chosen, the things that are not, so that He may nullify the things that are, so that no man may boast before God." Like David, Gideon was also the youngest in his father's house, which meant the least.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enables and empowers believers to service, not man.

In Judges 15, we read about Samson's feat with the Philistines. The Bible tells us that Samson "found a fresh jawbone of a donkey, so he reached out and took it and killed a thousand men with it"(v. 15). Do you believe it? A single man killed one thousand men with a donkey's jawbone in his hands. It is hard to imagine a single man killing a thousand men with a sword, or even a gun, yet alone a jawbone. I believe it. Samson was a strong man, but it was the Spirit of the Lord which came upon him that enabled him to do the miraculous.

In 1 Kings 17, we read about God's provision for Elijah. The Bible tells us that God told Elijah, "Arise, go to Zarephath, which belongs to Sidon, and stay there; behold, I have commanded a widow there to provide for you"(v. 9). This poor widow was preparing a last meal for herself and son that consisted of only a handful of flour and a little oil. Elijah asked her to give him this meal, and then prepare something for herself and son. She did, and the flour and oil never disappeared during the three-year drought. That is how our amazing God works. He always uses the weak things to make strong things, if people are willing to serve.

In 2 Kings 5, we read about Elisha the man of God and Naaman the leper. The Bible tells us that a little slave girl from the land of Israel told her mistress, "I wish that my master were with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Then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v. 3). Her master, Naaman, went and told his master, the king of Aram, "Thus and thus spoke the girl who is from the land of Israel"(v. 4). Here we see God use the tiny lips of a little girl with no power to spread the mighty power of God to a whole country. Acts 1:8 say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God wants to use your lips. Are you willing to serve Him?

In Luke 21, we read about Jesus' observations concerning the gifts put into the treasury by the rich and poor.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explained to His disciples, "Truly I say to you,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for they all out of their surplus put into the offering;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that she had to live on"(vv. 3-4). Jesus said that the widow who only put in two small copper coins paid more than all the rich people put together. Do you believe it? I heard a famous preacher say once that God does not calculate how much you put in, but counts how much you have left in your pocket.

In John 6, we read about a boy who shared his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 with Jesus. The Bible says, "Jesus then took the loaves, and having given thanks, He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likewise also of the fish as much as they wanted"(v. 11). The little boy gave Jesus everything he had, and Jesus used it to feed 5,000 people, with leftovers. If the little boy had kept his food to himself, perhaps he and a few other people could have eaten it, but he gave it to Jesus and Jesus used it to feed the many.

In Acts 9, we read about Peter and a special woman called Dorcas. The Bible tells us, "Now in Joppa there was a disciple named Tabitha (which translated in Greek is called Doreas); this woman was abounding with deeds of kindness and charity which she continually did"(v. 36). Dorcas died, and the crying widow women showed Peter all the clothes that she had made for them. Peter folded his hands in prayer, and then told Dorcas to arise! Is not that a true miracle of God?

Revelation 2:10 reads,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ten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My dear friend, all we have to do is suffer a little longer and be faithful. Moses dedicated his heart to the Lord with only a stick in his hand, and God used it tremendously for His glory. All of Israel's slaves became free, delivered from Egypt. They crossed the Red Sea, and ate manna and drank water for 40 years in the desert. I do not think that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could have maintained this crowd, but Moses did it with a stick. Truly, it does not make a difference what you have in your hand, so long as you have God in your heart. God needs your faithful heart for His service, so stop bringing Him excuses. Whatever you have is enough to serve the Lord. I challenge you now to move forward in faith. 

다움주일 설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다”(출 4:2)



김성만 목사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 일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모세는 자기 손에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작은 지팡이를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마저도 그것을 무서워했을 정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약한 것들과 가장 작은 것들을 강력하고 훌륭하게 사용하시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몇 가지 다른 예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것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읽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시냇가에서 메글로온 돌 다섯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40절 참조). 그러니까 다윗의 물매는 한 손에 가볍게 쥌 정도로 작았습니다. 분명히 작은 물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작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작은 물매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냈을 뿐 아니라 거인 골리앗까지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에 손에 들려진 것은 긴 칼도 아니었고 작은 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작은 물매와 돌맹이 다섯 개였습니다.

사사기 7장에는 미디안을 이긴 기드온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군에 나팔과 한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햇불을 감추게 하였다고 말합니다(46절 참조). 수천 명이 되는 미디안 군사들은 갈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300명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는 나팔과 한 항아리만 들고 있었습니다. 나팔과 한 항아리가 전쟁에 무슨 보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시어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어 있는 것들을 패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유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29). 다윗처럼 기드온도 집안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고 가장 연약했습니다. 여자에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약한 것들을 사용하여 강한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사기 15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삼손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취하고 그것으로 일천 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15절).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 나귀의 턱뼈로 일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한 사람이 칼이나 총으로 일천 명을 죽였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일 겁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일천 명을 죽였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힘을 주신 분은 그에게 일한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서르밋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파루에게 명하여 너를 공짜로 하겠노라”(9절). 서르밋의 거인한 과부는 겨우 한 움큼의 약간의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을 위한 하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식사를 자신에게 먼저 주고 그와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고, 그 후 그녀의 집안은 겨우와 기름이 삼년 가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았습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방식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것들을 사용하여 강한 것들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약한 것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열왕기하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문둥병자 나아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쳐드리다”(3절)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람에 끌려온 이스라엘 출신의 작은 계집아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리이러하더이다”(4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계집아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람 전역에 알릴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아이의 작은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을 지켜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할만 전부를 넣었나...(3.4절). 단지 작은 동전 두 개를 헌금한 과부가 부자들이 드린 모든 헌금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전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곤 했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금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여러분의 것으로 남겨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요한복음 6장에는 자신이 먹을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에게 바친 소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11절). 어린 소년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쳤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얼마를 남기셨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신의 도식락을 예수님께 바치지 않았더라면, 소년 자신과 주변의 한 두 사람만 그 도식락을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메드로와 ‘도르카’라는 이름의 특별한 여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마데 다비다라 하는 여자에게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카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36절).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죽었고, 평소 도움을 입었던 과부들은 메드로 곁에서 울며 도르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면 저의 속옷과 겹옷을 다 내어 보였습다. 메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도르카에게 일어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도르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말합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여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네 사람을 죽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심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잠시 참으면 됩니다.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하나들 들고 있었지만, 그 상테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되었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졌으며, 광야 40년 여정 동안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부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손에 들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헌납하여 기쁘시게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스러움 마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지금 나아가십시오. **U**

수요1부 예배 메시지

내 언약을 이겼다 (호세아 8:1-7)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와 집에 덮치리나"(호 8:1a) 함으로 안타까운 선포이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심판이 선포된 것일까? "이는 우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호 8:1b) 이스라엘은 주님을 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은 선인이었다. 가장 속박받은 백성임이 분명하다. 그들에게는 전통, 역사, 말씀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뿐이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가장 속박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음성이 내려졌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참된 의미를 잃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겼던 이스라엘은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스라엘은 선인으로서 고만에 빠져있었다.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호 8:2b)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잃어버렸으니"(호 8:3b).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선책을 받았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불러 선인이 되었다(레 20:24,26).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셨다(신 7:7,11). 그러나 이들은 선인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흠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민 중에 나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바라보며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수 23:11b).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벧전 2:9). 또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참된 가치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과 같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감각을 잃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겼던 이스라엘은 영적인 감각을 잃었다. 매일 또는 율례에 따라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의 삶 속에는 제사와 기도가 있었지만 정작 그 속에 있어야 할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이기도 했지만, 우상을 향한 제사이기도 했다. "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호 8:4b)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을 쏟으며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럴 때 우리도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질적, 명예적, 권력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도 섬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찬송가 102장).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마 5:13,14 참조)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순종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다. 인간적인 자존심, 명예, 의식적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부인한다(호 8:7, 사 16:20). 더러운 것들을 만을 추구하게 만들고(렐 4:19), 영적인 감각을 잃게 만든다. 이 땅의 것만을 사랑하게 만든다.

이스라엘은 겸손을 잃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겼던 이스라엘은 겸손을 잃었다. 영적인 감각을 잃은 자들 속에는 겸손이 없다. 겸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주를 아나이다"라고 떠들며 댕다. 하나님의 백성 종이라고 자부하고 있다(호 7:10). 오직 교만뿐이다. 자기들의 실력과 실적만을 과시하려고 한다(마 7:21,22). 그러나 결국 이들에게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마 7:23, 잠 16:18).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약 4:10).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길 바란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저 흉악한 자에게서 그 은혜를 잊었네. 흉포를 입은 구주는 자기 면류관 쓰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니 그 아픔을 참았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엮는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찬송가 336장 참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만이 전해지길 원한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길이다.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권사칼럼

나의 나 된 것은(고전 15:10)

한영덕
(권사 4차회장)



먼저 보잘것없는 저를 부르시어 주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처음 권사회 지회장으로 임명되던 날, 하루 종일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의 큰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부족해도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된 엄마에게 아직도 다듬어지자 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세요." 그 때 큰 딸이 제게 해 준 말이 정말 유효했습니다. 여전히 제 힘과 방법대로 행하며 온전히 순종지 못하던 저를 깨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무를 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부추낸 저에게 권사회 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직분을 감당하면서 남보다 회개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저는 가운데 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모나고 못 난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과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분을 맡아서 제가 주님께 헤드린 일보다는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히려 더 많고 큼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심히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권사 4차회는 4개의 교구, 즉 4교구(42명), 16교구(76명), 17교구(53명), 18교구(52명)의 원로, 은퇴, 시무 권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213명의 귀한 권사님들이십니다.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특히 권사 24시간 연속기도표를 작성할 때 각 권사님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기도시간을 배정해야 하는 데, 많은 권사님들의 형편을 일일이 살펴 수감 어려움이 있었습니. 그러나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기도시간을 자청해서 담당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제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되곤 되었습니다. 4개의 지회 중 4차회가 인원이 가장 많았기에 두 분의 권사님이 한 조를 이루어 두 시간의 기도 시간을 담당해 왔으나 2004년도에 들어서 교구가 분할되면서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 시간 배정이 무척 힘들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권사 24시간 연속기도회에 청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그 동안 권사님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를 청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담당해 주시니 이제는 오고가는 교동편도 걱정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열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와 감격을 기도 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을 뛰어들어 광범위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넓혀주시는지 정말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일꾼들과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자신의 생활에 매여 허비했던지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몸이라 불리는 사명사관으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도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제 자라는데 남보다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배 권사님들의 사랑과 권면과 동료 권사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저를 만져 주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밑에서 힘이 되어 주는 베풀 한 것이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계획과 선택

우리의 삶은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주님의 치밀한 계획은 우리 팀의 도락과 함께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 비스에 올랐다. 그런데 그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현지인 동역자를 만난 것이었다. 우리 팀은 이동 비스에서 우연히 우리가 사역할 국가의 사람을 만난 작은 호기심 속에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캐나다에서 일년 정도 봉사 단체에서 일을 하고 귀국하는 길에 우리 일행을 만난 것이었다. 그는 오랜만의 귀국 후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을 쪼개어 우리 팀을 위해, 아니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며 다음날 계획을 함께 나눴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다. 그는 현지의 상황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를 통해 주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혼들을 소개하려 한다.

내가 생각한 주요 전도대상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었다. 빈민가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나에게 아픔과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경제심 없는 순수한 눈빛으로 우리에게 모여들었고 나라를 주는 전도를 책받침 하나에 풍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려운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따라 읽으라고 했을 때 입을 모아 토박토박 읽는 그 아이들이 마치 천사 같았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성경구절이지만 한 자 한 자

따라 읽는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전도지를 더 읽고 준비해간 찬송가를 불러 주었을 때 숨을 죽이고 귀 기울이는 아이들의 태도는 감동으로 다가왔다. 더 준비해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서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에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사역지 외곽에서 축소전도 중 만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이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겠다고 말한 뒤, 그 청년과 함께 전도지의 내용을 읽어 내리었다. 그는 성의껏 다 읽었고 구원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지 없이 '예'라고 대답했다. 몇 가지 말씀을 읽고 성소한 사람에게 구원을 원한다고 대답하는 그 모습이 나를 속으로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계획과 선택이었다. 그는 영접기도를 마친 후 나에게 '죄의 삶은 사망이요'(롬 6:23)라는 말씀에 두려움을 표현하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물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말씀에 관심을 보이는 그에게 구입했던 헌지가 성경을 전해주려 했으나 가지고 온 성경이 다 떨어져 너무 안타까웠다. 팀장님께 꼭 그에게 성경을 전해 주라고 부탁드렸고 우리는 다음날 다시 그 집을 찾아가 성경을 건네주어 그 책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매일 읽을 것을 권했다. 우리팀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고,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나는 사역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주님의 통치가 그 민족과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우지현(청년1부)

은혜 속의 10일



처음 단기선교에 참여하려는 뜻을 밝혔을 때 부모님은 어른들께 집이 되어서 않을까하는 생각에 반대하셨다. 그러나 나의 수차례의 간청과 팀장집사님의 도움에 힘입어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CMTC훈련을 받았으며 이번 단기선교가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고백하며 되어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보내시는 주님의 심정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준비했는지도 모르겠다.

뒤돌아보면 단기선교에서의 열흘 동안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다.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모임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가 있었다. 말씀이 좋았고, 기도는 나를 더욱 성숙시켰으며 언어혼란을 할 때는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났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는 가슴 졸이게 하는 일들과 좋지 않은 현지 상황을 들으면서 단기선교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 전에 들었던 복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교회 역사상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은 결코 없었다." 그래서 팀장 집사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팀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땅에서도 쉬지 않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 팀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으며 기쁨과 감격으로 열흘의 사역기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그곳에서 집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많은 도전을 받았고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까지 갖게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하나 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크게 깨닫게 된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오니 귀를 기울이시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시 40:1)라는 말씀을 절실히 느끼며 공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삶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선교지에서의 열흘은 내 믿음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격하는 영적인 경험의 기회가 되었다. 지금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선교지에서 있었던 열흘 동안의 경험을 마음에 간직하고자 한다.

이은미(중동3부)

선교를 다녀와서

다른 팀과 달리 우리 팀은 팀원도 빨리 구성되었고 모일도 일찍 가졌다. 그래서 그런지 2차면담을 마치고 3차면담이 끝나서야 선교를 가는 게 실감이 났다. 나는 언어도 다 외우지 못한 상태로 선교지로 떠났다.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서 속도 안 좋고 감까지 잡아서 도착 후 3일 동안 선교를 제대로 못했다. 어른들께 집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좌절했다. 도착 후 2일째 되는 주일, 모두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예배도 참례에 누워 있었다. "바라구 우리 선교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더 간절히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고 약을 먹고 쉬었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다. 하나님께서 낮게 해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라에 사람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직접 가서 보니 사람이 많다는 게 실감이 났다. 전도지를 많이 가져왔지만 선교 시작 후 며칠만에 전도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온 어린이 그림사역을 했다.

10명의 팀원이 2인1조가 되어 선교를 했다. 나는 나와 같은 조가 된 집사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아줌마에게 전하는데 내 말씀이 안 통아서 그런지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힘이 빠지 집사님이 어린이사역을 하는 것만 옆에서 듣고 있었다. 그때 더 힘내서 전도했어야 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은 게 아쉽다.

선교를 다녀 와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참 종교로 믿고 매일 아침 영탄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외에 어떤 지역에서는 염소의 목을 칼로 쳐서 죽여 그 피를 몸에 바르고 신전에 들어가 제사를 지낸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 간절하게 느꼈다.

마지막 평가 기도회 때, 나는 더 열심히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고 다짐했다. 선교지에서 내가 한 일은 극히 작은 것이다. 우리가 와서 뿌린 씨앗을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 거름을 주시며 잘 보살펴 주시리라 믿는다. 언젠가는 그 나라도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의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날이 올 것이다.

정지현(중동2부)



★ 이번주 출판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9월 13일(월)~9월 21일(월)	12교구 7부	원승철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6일(월)~9월 15일(수)	6교구 3지역	윤성복	9월 7일(화)~9월 16일(월)	1교구 5지역	김창경
9월 6일(월)~9월 16일(월)	15교구 3지역	이강근	9월 7일(화)~9월 16일(월)	16교구 3지역	남용철
9월 6일(월)~9월 16일(월)	15교구 7지역	이강재	9월 7일(화)~9월 14일(화)	은평로동	이태복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31일(화)~9월 10일(금)	16교구 4지역	홍정성	9월 11일(수)~9월 10일(금)	1교구 9지역	김용조

교회탐방 94 주간성경공부

꿀보다 단 말씀

지난 7일(화)부터 2004년도 하반기 주간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 과목들이 개설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계명을 지키고자하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주에는 주간성경공부에 참석한 몇몇 성도들을 만나 보았다.

편집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성경공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성경공부를 신장하신 이유나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경희 집사: 저는 이번이 지난 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아이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이에 반응하는 것을 보며 말씀이 아이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기대가 됩니다.



박경희 집사

편집실: 강신순 권사님께서 주간성경공부를 매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참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신순 권사: 나이가 들면서 눈이 안 좋아져 성경을 읽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성경공부와 같은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이전에 미처 몰랐던 사실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교구 식구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강신순 권사

편집실: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 중에 기억에 남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강신순 권사: 저는 창세기를 배웠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인류의 족보를 통해 잘 알지 못했던 비빌들을 많이 알 수 있었지요.

편집실: 백선희 집사님께서 는 타 교인인데 어떻게 참석하게 되셨습니까?

백선희 집사: 저희 교회에도 전에는 성경공부모임이 있었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차에 중현교회 교인인 직장동료가 주간성경공부를 추천해 주었고 교육내용을 보니까 체계적으로 생각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찬양대원양성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편집실: 라병순 성도님께서 는 교회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장하게 되셨습니까?

라병순 성도: 지난 6월에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남편이 크리스천이어서 가정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저 혼자 이 교회에 나와 보았고 성경공부를 한다는 소개지를 보고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은 등록하고 새가족부에서 양육을 받고 있으며 성경공부도 할 것입니다.



라병순 성도

김 광 집사: 저도 이번이 처음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진리를 알고자 과감하게 신청했습니다.

이인용 집사: 맞습니다. 남자성도들은 직장일 등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석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녁반이 7시부터 7시 30분으로 바뀌어 좋습니다. 사실 피곤하고 7시까지 교회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편집실: 이인용 집사님과 박복속 집사님은 부부반에 신청하셨죠?



이인용·박복속 집사

박복속 집사: 부부가 함께 공부하면 서로 물어보거나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부분도 있고요. 남편게 잘 말씀드려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세요.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박복속 집사: 예, 이전에도 저희 부부는 함께 성경공부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과목이 부부반으로 설정되어 이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라병순 성도: 부부반이 있나요? 저도 고린도전서 과목을 신청했는데, 남편과 함께 들으면 정말 좋겠군요. 저희 남편은 바쁘다고 요즘은 주일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온 것이구요.

편집실: 이번엔 신장하는 과목을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광 집사

김 광 집사: 저는 로마서를 공부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보석과 같다는 어느 목사님의 추천으로 결정했습니다.

백선희 집사: 평소에도 사도행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신청했습니다.

박경희 집사: 저도 사도행전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신교지에 있는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했는데 바울의 전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사도행전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당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도 했고요.

강신순 권사: 이전에는 신앙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왕기서를 공부하려 합니다. 열왕기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인용 집사: 저도 개인적으로 구약이 재미있고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초신자들도 복음의 비빌이 밝혀 드러난 신앙성경과 함께 구약성경에 담긴 복음의 비빌들도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백선희 집사

백선희 집사: 일하는 것과 성경공부시간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강신순 권사: 현대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성경공부가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공부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역식구들이 성경공부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볼 때면 정말 기쁩니다.

박복속 집사: 저도 권사님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1:1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공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또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도 성경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약한 가운데 있다가도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박경희 집사: 다른 분들도 다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듣는 설교 말씀도 충분히 지금 이 세상과 우리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하게 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병순 성도: 인터뷰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은 것을 느낍니다. 빨리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인용 집사: 예전에는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됐던 적이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열성적인 필요가 있나 너무 지나치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성경공부를 해본 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인들을 위해 화요일 개설과목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공부를 해보면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을 못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 폐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강단에서 증거 되는 말씀이 정말 좋은데 적은 인원이 듣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했으면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바쁜 일상을 뒤로 미루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이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깨닫는 영을 통해 복음의 비빌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이분들이 영을 모아 하시는 말씀은 성도들이 모두 함께 성경공부에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권하고 늦은 시간에도 모이는 이유는 아마도 시편 기자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 119:103).

제37대 장로 후보자 명단



김은철
나이 67
교구 13
본사 부서 지역장
번호:1



진학열
나이 63
교구 18
본사 부서 지역장
번호:2



김신국
나이 57
교구 1
본사 부서 아멘찬양대 부대장
번호:3



전계식
나이 56
교구 7
본사 부서 지역장
번호:4



김형곤
나이 56
교구 3
본사 부서 유년부 부감
번호:5



장승규
나이 55
교구 2
본사 부서 새가족 운영관리실 부감
번호:6



진은배
나이 53
교구 14
본사 부서 지역장
번호:7



석은식
나이 52
교구 11
본사 부서 지역장
번호:8



구재완
나이 52
교구 2
본사 부서 유아부 부감
번호:9



송두섭
나이 50
교구 7
본사 부서 초등부 부감
번호:10

(나이순)

주님만 바라보며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선교지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막 9:29).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도록 도우소서.' 이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셨고 주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람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무더운 날씨가었지만 찬양의 은혜가 만들어준 그들의 시원함을 느끼며 심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 주님의 생명령 깊은 곳에서 시원한 생수가 흘러넘침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는 많은 영혼들의 눈물음이 초 롱 초롱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왜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

이 메마르고 척박한 대지 위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을 사로잡았습니. 이들이 돈이 없고, 가난해서 못 먹고, 병들고, 기근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심자가 복음을 모르고, 믿지 못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없는 무지한 모습이 마치 꺼져가는 심지 없는 등불과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 그랬기에 우리들은 더욱 소리높여 복음을 외쳤습니. 사랑의 음절한 골짜기에서 사단의 종도릇한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흘린 한 방울의 땀이 저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름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역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무릎을 꿇게 하소서.'

이 상 해 (안수집사, 2교구)

다음 주일 찬송

355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다음 주일 찬송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시되었다. 작시자 이효운(1911-1969)목사가 미국 에빈스턴시 개척 신학교 재학 당시 작시한 찬송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 어떤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가겠다고 다짐하는 헌신의 찬송가이다. 작곡자 이우선(1911-)교수는 1927년 이래 오늘날까지 교회 찬양대를 지휘하며 여러 대학에서 가르쳤다. 그는 찬송과 더불어 신앙이 자랐다고 술회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5대 목표 중에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가 있는데, 이 찬송의 가사내용과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야한다. '아골 골짜기 빌들에도, 소돔같은 거리에도 복음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불러야 할 찬송이다.

(찬양위원회)

새·가·록·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504	김지현	15	청년2부	전옥순(15)	2518	김종은	19	외선부	김신국(1)	2531	나혜영	11	청년2부	유계순(9)
2505	김윤정	14	청년2부	김경희(15)	2519	김광호	19	외선부	김신국(1)	2532	류종희	1	청년2부	이보선(1)
2507	장재호	2	장년2부	구자현(2)	2520	박미진	19	청년1부	김성희(17)	2533	김용환	9	장년1부	장길남(7)
2508	황국주	1	장년1부	이연인(1)	2521	정현실	19	청년2부	조순재(17)	2534	오은석	19	청년1부	김준관(17)
2509	남평우	15	해변대부	안성림(16)	2522	김경일	1	장년2부		2535	박재홍	19	청년1부	한민교(18)
2510	이철4	8	소망부	김순옥(8)	2523	이현일	19	청년1부	임우영(18)	2536	고광남	17	장년1부	황기수(9)
2511	김남희	4	소망부	김보혜(8)	2524	김성하	19	청년1부	남성민(16)	2537	조정훈	2	청년2부	
2512	손미리	8	소망부	송현정(8)	2525	홍춘자	16	소망부	홍영숙(16)	2538	오정은	1	청년1부	
2513	박근영	9	장년3부	박영림(10)	2526	김영철	19	청년1부	최홍실(15)	2539	이승준	1	청년1부	
2514	유명자	9	장년3부	유재현(10)	2527	최규철	19	대학부	유재현(17)	2540	박영주	19	청년1부	김혜철(19)
2515	정명재	4	소망부	김홍철(4)	2528	이명수	16	장년1부	김정재(12)	2541	조혜란	19	청년1부	고지영(9)
2516	이예벤티나	19	충동3부	김보라(17)	2529	신다영	16	장년1부	김정재(12)	2542	조영선	19	대학부	조현숙(19)
2517	송수정	15	고등부	송민규(16)	2530	김다혜	11	청년2부	유계순(9)					

※ 찬양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록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소문부	교주김경원	49년	42년
이종철 (중추원)	김영훈 52년	여국구 50년	김교성 52년
방준호 (중추원)	김경원 51년	정진호 51년	김용덕 52년
이권남 (중추원)	13년	장 훈 17년	이원덕 17년
최종철 (중추원)	18년	임치원 18년	이대복 18년
양재호 (중추원)	53년	조규근 53년	최성기 53년
이경준 53년	이창수 28년	김준희 50년	윤승일 52년
황성진 53년			

■ 남진도사 소요한 (외관)

정진희 53년	김동주 53년	윤원익 53년	함영준 53년	김진식 53년
홍순호 53년	이옥주 53년	김갑자 53년	안대춘 53년	김경원 53년
조옥자 53년	강덕비 53년	최보신 53년	전은희 53년	김영준 53년
김갑자 53년	이창수 53년	김경희 53년	이복춘 53년	류진희 53년
한성익 53년				

■ 여진도사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